

‘웃음의 북’ 남기고 하늘의 별이 된 구봉서씨

# 고단한 서민 위로한 ‘희극계 대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72자 유행어 지금도 회자  
“어려운 코미디언 많으니 조의금 받지 말라” 유언 남겨



MBC ‘웃으면 복이와요’에서 코미디 연기를 펼치고 있는 구봉서(위). 2013년 ‘원로대중문화예술인 초청 오찬’에서 원로 가수 금사향(왼쪽부터), 코미디언 송해, 구봉서씨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코미디언 구봉서는 우리나라 희극계의 대부이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연예계의 거목이었다. 그는 배삼룡, 광규석 등과 콤피를 이뤄 1960~80년대 한국 희극계를 주름잡으며 코미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웃음으로 고단한 서민들의 삶을 위로했다.

그는 1926년 의료상을 하는 평양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945년 대동상고를 졸업한 뒤 태평양악극단 악사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평소 취미로 즐기던 아코디언을 들고 길거리를 지나다던 중 급약 악사를 구하던 태평양악극단에 의해 캐스팅 됐다.

그는 1940~60년대 연극, 만담, 코미디, 노래가 어우러지는 악극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양석천, 양훈, 김희갑, 서영춘, 배삼룡 등과 함께 전국을 돌며 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충무로에 진출해 코믹영화의 전성기를 열었다.

‘애정파도’를 시작으로 ‘수학여행’,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가도’, ‘번지수가 틀렸네요’, ‘엄통에 탈난 사나이’, ‘오부자’, ‘돌아오지 않는 해병’ 등 4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1969년 MBC TV 개국과 함께 탄생한 장수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와요’에서 ‘비실이’ 배삼룡과 명콤비로 연기를 선보이면서 국민적인 스타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방송사와 소무대에서 구봉서를 끌어오기 위해 막후 벌인 남치 혈투가 전설로 남아있다.

한편은 ‘웃으면 복이와요’의 콩트에서 극중 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뜻으로 글자수가 72자나 되는 긴 이들을 붙여줬는데, 지금도 회자되는 희대의 유행어가 됐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상 차차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브리강 무

드셀라 구름위 허리케인에 담배락 사생원에 고양이 고양이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동양방송(TBC) TV 프로그램 ‘쇼쇼쇼’에서는 ‘후라이보이’ 광규석과 콤피를 이뤄 새로운 코미디를 선보였는데, 이를 계기로 라면 TV 광고에 등장해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카피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찰리 채플린의 희극 연기를 신봉했던 구봉서는 “코미디는 풍자”라고 믿었다.

매를 맞더라도 잘못된 정치와 사회를 풍자하는 진실이 담긴 코미디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그는 은퇴 후 가진 한 인터뷰에서 “요즘은 풍자 코미디가 부족하다”며 “코미디가 사회를 정화하는 역할을 못 한다면 의미와 역할이 퇴색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유행어를 낳았던 구봉서는 이에 대한 생각도 남달랐다. 몇년 전 한 TV 방송에서 그는 “악업의 시대에 사람들의 억눌린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에 유행어가 됐다”고 했다.

그는 60년 이상 희극인으로 살면서 사회와 연예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구봉서는 은퇴 후 종교 생활에 전념해왔다. 인기가 정점에 있던 1970년대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며 연예인 선교에 힘쓰며 서울 평창동의 연예인교회(현 에능교회) 설립을 주도했다.

구씨의 빈소에는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졌다. 임용수 한국코미디언협회장은 “선생님이 남기신 큰 업적과 큰 사랑은 후세에 길이 빛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선생님이 코미디언 중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 조의금을 받지 말라”고 유언을 전했다.

# “나만의 로코 자신있어요”

〈로맨틱코미디〉

김래원 영화 ‘더 프리즌’ ‘부활’ 개봉 앞뒤



김래원(35)은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아는 배우다. 어떤 배역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소화해야 극이 살아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안다는 의미다. 소신이 뚜렷했다. 19년의 연기 경험에서 오는 노련함도 있지만 타고난 감수성에서 비롯된 섬세함이 작용하는 듯했다.

“요즘 제 연기의 베이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그냥 제 식대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영화 ‘아저씨’의 역할을 제가 하면 원빈 형처럼 멋있게 할 자신은 없어요. 그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감동은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장점을 잘 살려서 더 리얼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정통 메디컬드라마를 해도 극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깊으면 제가 그걸 살짝 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SBS TV 월화극 ‘닥터스’를 끝낸 김래원은 자신감 있어 보였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톰 행크스. 요즘 딱 그런, ‘터널’ 같은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저만이 할 수 있는 것, 정말 사실적인데 보는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사실 영화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드라마도 할 겁니다.”

1997년 MBC 드라마 ‘나’로 데뷔한 김래원은 2003년 MBC TV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를 통해 로맨틱코미디 주인공으로 얼굴을 널리 알렸다. ‘닥터스’의 주인공인 의사 홍지훈은 그런 그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냈다. 덕분에 ‘닥터스’는 후반부 시청률 20%를 넘기는 성공을 거뒀다.

그는 “로맨틱코미디는 자신 있는 분야고 저만의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래원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강남 1970’에서 친구를 배신하는 조직폭력배, SBS TV 드라마 ‘펀치’에서는 출세욕에 눈먼 속물 검사 역할을 맡아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현재는 출연한 영화 ‘더 프리즌’과 ‘부활’의 개봉도 앞두고 있다.

그는 “‘강남 1970’ 같은 섀넬 역할은 가끔 할 것이고 제 베이스는 진정성 있고 인간적인 쪽으로 풀 생각”이라며 “악역도 넘나들 수 있는 연기를 가끔은 하고 싶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저는 열정이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기가 점점 더 재밌어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떤 여자에게 프러포즈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아직 잘 모르겠다. 지금은 영화도 두 편 찍었고, 할 것도 많고 몇 년 걸리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독신주의냐고 묻자 “아니요. 제2의 삶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답했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옥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옥정 찰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발상의 전설 55 별별가족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2	00 연중기획-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키즈 사이언스 5	
3	00 콘서트 필 50 안녕 우리말 55 튜튼생활제(재)	00 자몽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 키즈스쿨 55 깨달음시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 남도에 살아리라
7	00 KBS 뉴스7 35 우리할 거꾸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공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구르미 그린 달빛 특별판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려)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2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40 사랑의 가족(재)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스포츠 특선 MLB 핫토크	20 나이트라인 50 테라스페셜 베스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0 이팝! 스페이스 정글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09:40 아버지의 귀환
06:00 한국기행 (어름의 맛 1부)	10:30 한국기행 (재)
06:20 세계테마기행 (다워 피해서 찾아간 곳)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낙지 배우침과 오이무침)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여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07:45 꼬마버스 타요	12:10 글로벌 가족특집-한국에 산다
08:00 동물맹 유치원 1~3	12:4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줄거운 수학 EBS MATH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50 그림을 그려요
09:15 출동! 슈퍼핑크	13:55 시계마을 타기톡!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아동명명 귀여워	
15:35 요술 상자	
15:45 출동! 슈퍼핑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6:45 동물맹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교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기름기미외의 사투)	
20:50 세계테마기행 (중국한기행8 황하 1부 천성지수)	
21:30 한국기행 (비밀의 문이 열리면 1부 보물 따라가세)	
21:50 EBS 다큐 프리임 (아트레프레다, 경제강국의 비밀)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9일 (음 7월 27일 癸未)
<b>子</b>	48년생 허을 좋은 명분 보다는 알찬 실속을 차리는 것이 이익이다. 60년생 괜히 헛고생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72년생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로 바쁘다. 84년생 기대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9, 62	42년생 단일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54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66년생 도모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78년생 천군만마를 얻음과 같이 흠족하리라. 행운의 숫자 : 67, 97
<b>丑</b>	49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61년생 소근나지 않게 처리함이 백만 내을 것이다. 73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85년생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85, 19	43년생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염려된다. 55년생 간절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한 시기다. 67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구된다. 79년생 경사스런 일로 인해서 속저 분위기에 싸여 있는 상황이다. 행운의 숫자 : 58, 64
<b>寅</b>	50년생 강풍이 불 것이니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62년생 숨고르기를 하면서 속고해 본다면 선택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74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처해야 할 때다. 86년생 살펴보다 더 부풀려진 것임을 참고하라. 행운의 숫자 : 34, 88	44년생 형편을 감안해서 적절히 처리함이 맞다. 56년생 서막에 이르자마자 즉시 가락이 잡히리라. 68년생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80년생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행운의 숫자 : 90, 53
<b>卯</b>	51년생 완성도의 차원에서 바라보자. 63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다. 75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87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화도 비껴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61	45년생 초심대로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57년생 순조로운 운을 더 하고 있으니 가속도를 낼 때다. 69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림자를 손해로 이어진다. 81년생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니 어렵잡아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행운의 숫자 : 21, 43
<b>辰</b>	40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52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 하자. 64년생 소신껏 처리하자. 76년생 굳은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견디어낼 수 있다. 88년생 능히 집착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89	46년생 한 번 베푼 말은 주위 담을 수 없는 법이니 삼사일언하자. 58년생 짧은 시간을 할애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70년생 현재 상태대로 진행하라. 82년생 가볍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 행운의 숫자 : 10, 25
<b>巳</b>	41년생 황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53년생 살펴보면 여실하 드러나리라. 65년생 여과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 77년생 소모적임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89년생 들고 있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86	47년생 공평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59년생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71년생 상대의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83년생 인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47